

# 新經濟 活性化 政策의 問題點과 對策

李 鍾 郁

〈서울女子大學校教授·經博〉

## 1. 問題의 提起

정부는 개혁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고 무되어 있고 국민들도 개혁의 신선함을 만끽하고 있는 동안, 新經濟 100일 계획이 종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한국은행은 5월 27일 93년 1/4분기 경제 성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93년 1/4분기는 92년 年末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호전되고 재화 및 용역의 수출이 크게 신장된 반면 설비투자는 별로 호전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대체로 정리해 보면 경제가 경기변동상의 底點은 통과한 것 같지만 투자가 부진하므로 경기회복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 및 일부 학자들은 대체로 3/4분기에 이르면 경기가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경기회복은 부진한 상태이고 94년 정도에나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의 안정된 시장에 대한 수출이 별로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나 일부 학자들의 낙관적인 예측에는 수궁하기 어렵다. 本稿에서는 현재 한국경제의 景氣狀態를 점검해 보고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활성화 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韓國經濟의 現況

### 1) 1/4分期 경제성과

한국경제의 경기상태와 그에 대한 각종 전망을 논하려면 우선 <表-1>로 요약된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발표한 93년 1/4분기 경제성가지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93년 1/4분기의 경제성과는 기계류 투자를 除外하면 92년 4/4분기의 경제성과보다 더 好轉되어 있다. 나타난 지표로만 본다면 분명히 경기는 호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출이 12.1%로 급격히 증가하고 GNP 및 GDP가 각각 3.3%, 3.4%로 증가했지만 93년 1/4분기 경제성과를 '불안한 경기회복' 또는 '내실없는 불안정한 성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투자가 여전히 마이너스成長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류 투자를 제외하면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경기가 호전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의 수출호조를 경쟁력이 아닌 恩高 덕택으로 보고 있다. 5월 중반 이후의 금리상승을 제외하면 그동안 대체로 金利가 下落 安定勢를 보였지만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일부 품목에서만 수출호조를 보이는 것을 보면 일단 정부 의견보다는 업계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된다.

### 2) 수출과 제조업의 성장

산업의 성장 추이가 지표상 가장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역시 수출이다. 1/4분기 재화 및 용역의 수출이 지난 연말 대비 5.3%에서 12.1%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성장률은 92년 연말

0.3%에서 1.4%로 4배 증가한 셈이다. 이것은 수출의 증가와 연관이 깊다.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미시적으로 관찰해 보면 수출의 증가가 內生的인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상승이 아닌 외생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회복되고 있는 듯한 수출호조가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때 外生的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엔高와 中國 特需-를 들 수 있다. 첫째, 엔高 진행상황을 엔-달러 율로 고찰해 보자. 원-달러는 1월말 794.0원에서 5월말 801.30원으로 800원을 넘어섰지만 반대로 엔-달러는 1월말 124.6엔에서 5월말에는 106.9엔으로 절상되었다. 일본 제품에 비해 品質보다도 價格競爭力에서 뒤지는 한국상품은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실제로 일본에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던 일부 품목들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中國 特需 效果이다. 對美 달러환율의 절하와 엔高 덕택으로 증가되고 있는 한국 수출에는

지역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表-2>의 지역별 수출 증가를 보면 93년 1~4월 동안 수출 증가의 60.7%가 중국 특수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中國은 최근 소비자 물가가 급상승하고 투자도 급상승하여 경기가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제구조를 긴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中國 人民銀行은 경기진정을 위해 5월 15일 예금 및 대출금리를 각각 1.19%, 0.82% 인상시키고 3년 만기 정부채 발행수익률도 연 10%에서 12.5%로 크게 인상시켰다. 이것이 중국의 수입역제로 나타나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다면 한국의 중국 특수에 의한 輸出好調 趨勢는 수출 감소로 급반전될 것이다.

엔高下의 지역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한국의 輸出伸張 내용은 구조적으로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3>을 보면 시장기반이 安定的인 선진국중 美國에 대한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日本이나 EC 국가에 대한 수출은 계속 부진한 상태이다. 반면 엔高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輸入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表-3>은 아직도 한국의 제조업 생산구조의 두 가지 弱點이 存續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나는 자본재 및 핵심부품의 對日 依存度가 심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高品質이나 高價格 製品이 선진국의 안정적인 시장기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경제 지표(1985년 불변가격 기준)

<表-1> (전년동기대비 %)

	1992		1993
	1/4	4/4	1/4
국민총생산(GNP)	7.4	2.8	3.3
국내총생산(GDP)	7.6	2.5	3.4
산업	8.3	3.2	4.2
광공업	7.6	0.1	1.4
(제조업)	(7.8)	(0.3)	(1.4)
전기·가스·수도사업	7.8	4.9	11.3
건설업	3.6	-4.5	-0.9
서비스업*	8.5	5.0	5.4
최종소비지출	8.5	5.6	5.7
재화와 용역의 수출	14.1	5.3	12.1
재화와 용역의 수입	11.8	-1.0	-0.7
투자	6.5	-8.2	-5.8
설비투자	8.5	-10.2	-10.1
기계류	9.3	-13.0	-14.0
건설투자	4.7	-6.3	-1.7

\* 정부 및 민간비영리 서비스 생산자를 제외함.

### 3. 景氣活性化 對策의 問題點

#### 1) 新經濟 경기활성화 대책

문민정부의 슬로건인 新經濟는 궁극적으로는 공급경제학으로 장기적인 것이 많다. 新經濟 정책의

지역별 수출 증가율

<表-2> (單位: %)

	중 국	홍 콩	기 타
1991	6.1	14.4	79.5
1992	34.7	23.9	41.4
1993(1~4월)	60.7	9.9	29.4

\* 총수출 증가율을 100으로 볼때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임.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表-3>

(單位: 억 달러)

	수 출		수 입		미 국		일 본		E C		중 국	
	통 관	L/C	통 관	I/L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993 1	53.3	39.8	62.9	51.9	12.2	14.1	7.53	13.1	6.0	7.2	2.7	2.4
2	59.6	42.4	64.9	55.0	13.8	15.0	7.97	14.0	6.3	7.5	3.2	2.4
3	69.4	49.0	71.7	59.4	15.2	15.0	9.82	16.7	7.1	8.7	4.7	3.1
4	67.5	48.4	68.5	57.3	16.2	14.4	8.95	18.4	7.0	8.2	5.2	3.2

資料: 한국무역협회, 「주요 경제 지표」, 1993. 5. 18.

범주는 크게 두 가지 즉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이고 중점정책 과제는 세 가지—성장잠재력의 확충,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제 경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이다. 문민정부가 표방하는 新經濟의 構想을 보면 본질적으로 경제활성화는 장기적인 경쟁력 배양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新經濟 100일 계획의 경기활성화

장기적인 경기회복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新經濟 100일 계획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新經濟 100일 계획에서 제시된 7대과제중 경기활성화와 연관된 분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완화이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면 중소기업에 6~7.5% 장기저리금리로 지원되는 구조조정자금은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상업어음의 할인도 무제한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세트메이커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대부분이고 최종소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사활은 세트메이커 대기업의 생산관매

에 달려 있다.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수출이 부진하면 중소기업의 경기가 좋을리 없다.

둘째, 新經濟 100일 계획을 시작한 이후 정부가 50일 동안에 발표한 규제완화는 1차 670건, 2차 87건으로 총 757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나타나는데는 사람의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하므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3) 최근 경제성과에 대한 우려와 사고전환

정부는 꾸준히 新經濟라는 이름으로 경기회복을 추진해 온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놀라고 있다. 그러나 놀라는 정부가 잘못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50일이나 60일이라는 초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나 전문가들의 생각이 오히려 문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재 경제구조에서 케인지안식의 總需要 경기부양정책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巨視的 思考를 지니고 있는 정책 책임자 및 전문가들이 더 문제이다.

선진국 방식의 거시적 이론 및 지표를 통해 경기부양을 강구하는 정책은 한국의 경제구조에서도 短期에 성공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의 배

주요 상품별 수입

<表-4>

(單位: 백만 달러)

	총 수 입	원 자 재			자 본 재			
		원 유	기 타	계	일반기계	전기전자	반 도 체	계
1993 1	6,294	932	2,481	3,413	635	950	382	2,262
2	6,496	765	2,692	3,457	711	1,077	441	2,385
3	7,171	891	3,124	4,015	751	1,227	455	2,433
4	6,859	645	2,853	3,498	946	1,171	425	2,635

資料: 한국무역협회, 「주요 경제 지표」, 1993. 5. 18.

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기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한국경제의 微視的 構造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4) 한국경제 구조의 문제

경기활성화 정책에 앞서 한국경제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경기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투자의 회복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韓國經濟構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表-1>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낳은 것이 바로 고정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중에도 기계류의 설비투자 마이너스 성장이 가장 돋보인다. <表-3>의 지역별 수입을 보면 恩高로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恩高하에서도 수입선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상품별 수출입 구조를 보면 자본재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表-4>에 나타난 93년 1~4월까지의 주요 상품별 수입구조를 보면 자본재가 총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는 제외하더라도 자본재의 수입대체는 국내투자를 유발하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한국경제 구조에 맞는 경기활성화 정책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곧 지속적인 경기회복의 신호는 아니다. 가장 건전한 경기회복의 신호는 역시 투자의 증가이다. 따라서 경기활성화 정책은 한국경제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투자의 활성화는 對日 輸入 자본재의 국산화가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산화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없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투자활성화에 앞서 투자 기회를 창출해 주는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부의 경기활성화는 단순한 設備投資보다 裝備投資를 더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흔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기업의 기존 생산제품의 경쟁력이 단순히 비용으로 결정된다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설재 투자는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단순한 경기부양정책만으로도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더 질 좋은 제품 및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정부정책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정부는 기업이 질 좋은 제품 및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유리하도록 자원배분 정책을 취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거시경제 모형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변수는 수출과 이자율이다. 그러나 투자를 결정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은 기업가의 기대, 소위 '넘치는 기운(animal spirits)'인 것이다.

일례로 93년 1/4분기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 대통령이 기업가를 격려하고 장관이 기업 투자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는 등 부산스럽다. 이것은 개혁의 司正바람으로 인해 기업가의 '넘치는 기운'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투자의 결정요인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6) 修辭의인 정부 투자촉진 정책

대통령이나 장관이 대기업 소유자에게 투자를 늘리라고 설득한다. 그 결과 30대 대기업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5조여원인 올해 계획된 투자를 상반기에 早期 施行하는 쪽으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계획된 투자가 상반기에 모두 집행되고 나면 下半期에는 또 다시 投資不振이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투자가 왜 부진한가에 대한 根源的인 問題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선진국 경제와 같은 투자 촉진정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투자가 부진한 근원적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가만히 있는 것은 기업가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비난을 피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는 司正바람하에서는 더 심해질 것이다.

현재 기업은 투자하여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투자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현재 일본에서도 도입되는 자본재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정부의 투자촉진 정책이 미진하더라도 기업의 투자는 증가될 것이다. 기업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축적은 1~2년만에 되는 것이 아니다.

政府는 현재 우리나라 임금수준 및 국민소득 수준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19"컬러 TV공장, 시멘트 공장, 제철소 등의 건설하는 고정투자를 통해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장자동화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좋아해서도 안된다. 高附加價値 製品의 開發 그리고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기계나 자동화 기계에 소요되는 핵심부품, 이를테면 컨트롤러가 國産化될 수 있느냐를 중시해야 지속적인 투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新經濟의 경기활성화 대책이 修辭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대책의 근간은 단기적인 경기회생보다는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을 선행시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 4. 景氣展望

한국경제의 활성화는 輸出과 投資에 달려 있다. 輸出을 통해 본 한국의 경기전망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특수가 진정되면 수출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긴축경제정책으로 전환하더라도 엔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로 인해 한국 전체의 수출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엔高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기 때문에 일본 제품에 대해 경쟁력이 있는 일부 제품 즉 일본이 쓴 노임을 이용해 현지투자를 하지 않은 품목의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즉 85년 이후 소위 3低때의 엔高와는 달리 앞으로 진행될 엔高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수출이 증가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고 일부 품목에서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경공업제품의 경우에는 中國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수출 여건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下半期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00엔 이하로 그 리고 年末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생산성 차이로 본다면 달러當 80~90엔 정도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한 엔高下에서도 일부 품목의 수출 선도현상이 총량적인 수출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선진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엔高만으로 수출이 크게 신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持續的인 성장은 근본적으로 投資에 달려 있다. 中國特需는 기존설비로 생산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중국특수가 투자증가로 연결되는 효과는 弱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투자증가는 先進國景氣回復 그리고 對日 수입의존도가 큰 수입중간재 및 시설재의 國産化程度에 달려 있다.